

## 아름다운 시골교회를 짓기 위한 제안

남 기 완(목사, 충북 충주 엄정교회)

### 서론

좋은 교회를 짓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으면 정말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란 어렵다. 또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어떻게 지으면 잘 지을 수 있나? 하는 물음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거나 정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질문이다. 그동안 시골 교회 짓는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잘 지었다느니 부족하다느니 이야기를 한 필자의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시골교회는 이렇게 지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자기 주장을 펴야하는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섰다.

필자는 14년 동안 시골 목회를 하면서 네 번의 건축을 하였다. 각각 다른 양식과 다른 용도와 다른 규모로 지으면서 지난 번 건축의 아쉬움을 밑거름으로 완벽한 건축을 위해 애를 썼지만 아쉬움과 후회가 늘 남았다.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다른 교

회 건축을 돌아보고 다시 교회건축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하였는데 새로이 시골교회를 짓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부터 완공할 때까지 과정별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정리해 보았다.

## 1. 건축 계획

재정이 빈약한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는 짓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교회가 낡아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수가 많다. 그러나 마지못해 짓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교회가 교회로써의 사명을 감당하고 한층 성숙된 교회로써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회건축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 교회가 다 지어지면 우리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고 지역사회를 향해서 보람 있는 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건축 계획을 하여야 한다.

건물의 외관에 집착하지 말고 필요한 공간을 세밀히 연구한 후에 그런 공간을 담을 수 있는 외관을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회를 짓기 전에 잘 지은 교회를 방문하고 사진을 찍고 연구하게 되는데 대부분 외관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외관보다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공간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실, 교육실, 친교실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그렇게 지었는가를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그 외 그 교회가 역점을 둔 부속 공간들은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나름대로 교회의 공간을 일반적인 공간, 특수공간, 복지 공간으로 나누어서 보곤 한다. 일반적인 공간은 예배실, 교육실, 친교실, 사무실 등이고 특수 공간은 다른 교회에 없는 그 교회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만든 공간을 말한다. 예를 들

면 농·도 공동체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도시 교인들의 휴식을 위한 숙소를 마련한다든지, 단순히 함께 식사하는 친교실 말고 사랑방과 같이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성경공부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 대부분이 노인들인 점을 생각해 교회 안에 찜질방을 만들어서 농한기에 교인들이 항상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한 교회도 있다. 복지공간은 화장실, 복도, 로비, 계단 등 사용하는 이의 편의를 위한 공간들을 말하는데 이 공간들이 건물의 품위와 질을 좌우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화장실과 로비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예배실이나 교육관의 면적을 줄이더라도 화장실이나 복도, 로비 등을 넓게 하고 신경 써서 장식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게 된다.

건축계획에서 목회자는 약점을 장점으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지가 경사졌다거나 모양이 부정형이어서 건축에 비용이 많이 들고 건축면적이 좁아진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면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더 아늑하고 아기자기한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비에 얽매이지 말고 설계도대로 건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규모의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를 10장만 그려주기도 하고 100장을 그려주기도 한다. 빈틈없고 정확한 설계도일수록 건축할 때 예상외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비싸게 주어도 오히려 경제적이다. 설계를 하는 건축사는 건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목회자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을 그로 하여금 다 그려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충분한 설계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축사는 건축의 전문가이지만 목회자와 입장의 차이가 있다. 건축으로써의 교회와 목회로써의 교회건물은 보는 시각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의욕이 있는 건축사의 경우 열심히 건축에 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건축학적으로나 건축미가 뛰어날지는 몰라도 정작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거나 불편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목회자는 그런 면을 연구하고 설계자와 토론하고 절충해야한다.

최근 건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건축에도 유행이 있다. 그런데 다른 유행은 그 유행이 지나면 촌스러워 보이지만 건축물은 그 시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도 멋스러움을 잃지 않는다. 또 건축 자재가 날로 새로워지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저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자재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짓고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 2. 시공

시공단계에서 도급을 줄 수도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법대로 해야 하고 감독자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할 것이지만 시공단계에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1) 자리를 지키자

감독자가 있고 성실한 일꾼이 있어도 목회자가 공사 할 때마다 자리를 지켜야 한다. 설계도 대로 한다고 해도 순간 순간 예기치 않게 결정할 일이 생기고 그 때 목회자가 없으면 공사를 맡은이들이 임의대로 하는데 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해 놓은 것을 고치려면 비용도 추가되고 일하는 사람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 2) 작은 것도 주의 깊게 처리하자

건물을 사용하다보면 골조가 잘못되었다든지 벽체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데서 느끼는 불편보다는 작은 것들을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아서 곤란을 느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 콘센트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전기 연결선들을 곳곳에 써야 한다든

지 꼭 필요한 곳에 수도꼭지가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건물이 완공된 후 계속적으로 불편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면밀히 검토하고 제대로 해야한다.

### 3) 건축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자

교회건축을 할 때 모두가 주인인 것처럼 간섭하기도 하고 주인 없는 집처럼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다. 건축 위원장도 있고 실무를 맡아보는 직분자가 있어도 최종 책임자는 담임 목사이다. 담임목사가 건축주로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시할 것은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 4) 전문가나 경험자를 참모로 활용하자

건축 과정에서 판단하거나 선택을 해야할 때 전문 지식이나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좋다. 그들과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만나서 토론을 하여서 후회 없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장시간 중단시키고 연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연락이 되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 3. 편리하고 특별한 교회를 위한 제안

지금 까지 일반적인 교회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좀더 나은 교회, 조금은 특별한 교회를 짓기 원하는 목회자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 1) 예배당에 욕심을 내지 말고 부속 공간에 욕심을 내자.

예배실 좌석수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아니다. 너무 크면 난방비 전기료 등 유지비가 많이 들고 청소하기도 힘들다. 교회규모에 알맞는 예배실을 짓고 그 대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속공간을 늘리자.

### 2) 남에게 과시하기보다는 실속 있게 짓자.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말고 공간을 잘 활용하여 쓸모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좋다.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이며 그 공간들은 규모와 모양은 어떠한가 하며 공간들을 어디에 자리를 잡아서 유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여서 실속있는 건물을 짓자.

### 3) 목회방향에 맞는 테마를 정하자.

특별하게 짓고 싶어서 지붕의 모양이나 종탑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막상 짓고 나면 특별하지도 않고 건축비만 올라가는 수가 있다. 정말 특별한 교회 건축은 자신의 목회방향을 테마로 잡아서 구상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생명공동체를 지향해서 친환경적인 건축과 공동체 활동에 역점을 둔다든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목회를 위해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를 그려본다든지, 교육과 훈련에 역점을 둔다든지 나름대로 테마를 정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외관과 함께 내용도 특별한 교회를 지을 수가 있다.

### 4)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고 구상하자.

예배실은 직사각형에 좁고 낮은 보조강단과 크고 넓은 강단으로 꾸미고 교육실은 소예배실로 짓고 친교실은 식당으로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별한 건축을 원한다면 그런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구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배실의 경우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나 마름모로 만들 수도 있고 조개형이나 원형으로 꾸밀 수도 있다. 강단도 설교하는 강단을 최소화시키고 아래 보조 강단을 넓게 하여서 발표회나 공연, 각종 행사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기존의 교회의 형태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새롭게 그려보고 시도하자.

#### 4.결 론

지금까지의 제안이 교회 건축이라는 큰일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멀리서는 숲이 보이나 가까이서는 숲은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이듯이 남들이 교회 짓는 것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훈수를 하기는 쉬워도 막상 자신이 지으려면 어떻게 할 줄 몰라 애태울 때가 있다. 일에 뛰어들기 전에 지도를 보듯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건축에 임한다면 더 나은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

남기완 목사의 주소는 충북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이고 전화는 043-852-1536이다